



2024년 / 3월 4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3월 27일(수)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 연구원에 새 식구가 오셨습니다.

따스한 봄볕처럼 우리 연구원에 훈풍을 더해주실 새 식구가 오셨습니다. 빛고을 광주에서 키 큰나무 소아과를 운영 중이신 최봉석 님과 전남 장성에서 장성人 뉴스 발행인으로 활동하시는 변중섭 님이 김경수 이사님 추천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로 활동 중인 김명희 님과 이대승 님도 연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김명희 님은 박애스더 회원께서 이대승 님은 변주승 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원의 새 식구가 되셨습니다.

4월부터 연구원의 대면 사업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27일(토) 15시부터는 2024년 1차 문화마당이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에서 열립니다. 5월 4일(토)에는 문화답사가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마당과 문화답사를 비롯해 연구원 대중 사업이 12월까지 매월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암태도의 송곳, 서태석 1924. 3. 27

목포에서 서쪽으로 2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섬 암태. 한때 섬에 사는 사람이 일만을 넘었으나 지금은 2,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암태도는 100년 전 오늘, 섬 전체를 휘감고 종래에 조선 팔도를 흔들었던 암태도 소작쟁의를 통해 “사람다운 사람은 다 암태에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사람들의 ‘사람됨’을 인정받았던 섬이기도 하다. 1920년대 당시 암태도에는 문재철이라는 유력자가 있었다. 그는 약 140 정도의 농지를 소유한 대지주로 많은 농민들이 그 소작을 부치며 살아가고 있었다. 전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멀리 강원도 철원과 충청도 당진에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그는 무려 7~8할의 소작료를 징수했고 이 터무니가 없는 착취에 맞서 송곳처럼 솟아난 이가 서태석이었다. 그는 20대의 이른 나이에 1912년부터 1919년까지 암태면장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일제 부역자가 아니었다. 그는 1920년에 3·1만세운동 1주년 행사를 준비하다가 감옥에 다녀올 만큼 불령선인에 가까운 인사였다.

1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그의 머리는 더욱 불온(?)해졌다. 민족의식에다가 사회주의 사상의 세례까지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고향 암태는 지주와 마름의 횡포 하에 온 섬이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자작농 집안이었지만 기꺼이 소작농들의 지도자가 된다. 키가 크고 얼굴이 길쭉하여 외모부터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섬이나 지리산 피아골 같은 데는 더러 엉뚱하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장골들의 후예(민중봉기의 주모자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암태도 소작쟁의 주모자 서태석도 그런 사람의 후손이다.”

(송기숙 산문집, 마을 그 아름다운 공화국 중)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4할로 내릴 것과 1리 이상의 소작료 운반 비용은 지주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역사에서 ‘아랫것들’의 요구가 순순히 받아들여진 적이 없듯이 지주들은 소작인들을 겁박했다.

굶어죽으나 맞아죽어나 매 한가지였을 암태도 소작회원들은 1924년 3월 27일 암태면 동와촌리에서 지주 규탄 면민대회를 열고 한물결로 일어섰고 그 중심에 서태석이 있었다.

서태석은 소작인의 단결을 목청껏 외치며 지주들의 횡포와 수탈을 고발했다. 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소작민들과 문재철측 인사들이 충돌하자 일제 관헌이 개입한다. 소작인 50여 명이 체포됐고 그 가운데 13명이 목포로 끌려가 투옥된다.

이에 전 섬이 들고 일어났다. 청년회고 부인회고 할 것 없이 천 명이 넘는 섬 사람들이 섬을 떠나 물으로 나와 '아사동맹'(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섬사람들은 연행자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그대로 법정 안에서 또는 법원 앞마당에서 굶어죽자는 결의였다. 남녀노소가 정말로 밥 한 술 넘기지 않고 "대지를 요로 삼고 창공을 이불 삼아" 버텼다. 일제 경찰도 혼비백산했고 암태도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전국이 들썩였다.

해방 후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를 위시한 당시 시국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다투어 변호를 자청했고 조선팔도와 해외에서 성금이 답지했다. 급기야 일본 경찰이 부랴부랴 중재에 나서 문재철과 소작회는 다음과 같은 합의에 서명하게 된다.

"소작료는 4할로 인하하고, 구속자는 쌍방이 고소를 취하하며, 비석은 소작회 부담으로 복구한다." 소작인들의 승리였다.

서태석은 소작쟁의 배후조종자로 검거되어 보안법 위반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 1927년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서기로 선출된 후 같은 해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조선 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그 와중에 일제에 의한 검거와 고문, 투옥의 반복으로 말년에 정신분열증세에 시달렸다.

그는 암태도의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기 싫다며 누이가 살던 압해도로 거처를 옮겼다. 1943년 광복을 두 해 앞둔 어느 날, 그는 논두렁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이 때 그의 나이 환갑을 한 해 앞둔 순아홉이었다.

소작료 인하를 부르짖으며 소작농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던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해서 일까. 벼 포기를 굳게 움켜쥔 채였다.

그의 조선공산당 행적 때문에 일제 때는 물론 해방 이후 반세기 가까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가 그의 독립운동 행적을 인정받고 현충원에 몸을 누이게 된 것은 그가 사망한 지 꼭 60년 되던 해, 2003년이었다.

1924년 3월 27일 남도의 섬 암태도에서 송곳 하나가 농민들의 잠을 깨웠다.